

기업용 5G 시장을 주도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메가트렌드, 2019~2024년

“메가 트렌드와 팬데믹의 영향으로 광대역, 원격 작업 솔루션 및 원격 작업을 지원하는 5G의 필요성 및 5G 엔터프라이즈 시장의 잠재성 증가”



출처 : Frost & Sullivan Blog, Asia-Pacific 5G Enterprise ... Transformation, Jan 11, 2021

- 최신 분석자료에 의하면, 메가트렌드의 영향으로 정부 및 공공 부문, 의료, 제조, 정보통신 부문 전반을 휩쓸고 있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수직 산업(vertical industry) 최종 사용자들이 새로운 어려움에 직면
 - 이러한 변화로 인해 기업은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지원하고 최적화하는 데 중요한 새로운 유스 케이스(use cases)를 혁신하고 활성화하여 비즈니스 효율성을 개선해야 함
 - 유스 케이스(Use case): UML의 행위자(actor)가 요구해 시스템이 수행하는 일의 목표
- 팬데믹은 메가트렌드에 타격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, 핵심적이고 중요한 광대역, 원격 근무 솔루션, 원격 근무를 지원하는 5G의 수요를 주도
 - 연결성 수요가 매우 강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, 이 지역의 기업형 5G의 잠재 수익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
 - 2019년 수익은 20억 달러였으나 연평균성장률(CAGR) 46.4%를 달성하여 2024년이면 139억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

- 전문가들에 의하면,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기업형 5G 부문에서 더 빠른 속도로 디지털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음
 - 변화하는 소비자 수요에 비즈니스 절차를 맞추거나 최적화하는 데 필요하나 이러한 디지털 혁신 주도권이 기존의 네트워크에 부담을 주고 있음
 - 새로운 솔루션은 적정 수준 안정성을 제공하려면 더 높은 대역폭과 가용성을 갖춰야 하며, 이에 따라 기업은 네트워크 인프라를 혁신하는 것이 필요
- 기업용 5G 솔루션과 네트워크 슬라이싱(network slicing), 에지 컴퓨팅과 같은 새로운 구현 기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될 것
 - 네트워크 슬라이싱 덕분에 기업은 구체적인 유즈 케이스에 사용될 5G 네트워크의 슬라이스에 대한 종단 간 소유권을 가질 것이며 뿐만 아니라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점이 있음
 - 기업은 더욱 개선된 통제력, 관리 역량, 네트워크의 민첩성을 확보하게 되므로 기업용 네트워크 사용을 최적화할 수 있음
- **(결론)** 기업형 5G 솔루션은 기업형 서비스, 애플리케이션, 역량을 혁신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, 시장 참가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무궁무진한 성장 가능성을 제시함:
 - **자동화를 구현:** 개방형 API를 활성화하면 유연성, 관리 용이성, 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음.
 - **에지 컴퓨팅 활용:**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장치가 증가함에 따라 IoT 기반의 유즈 케이스도 증가하는데 이러한 유즈 케이스를 처리가 원활해짐
 - **네트워크 슬라이싱 솔루션(network slicing solutions) 제공:** SLA(서비스 수준 계약)와 대역폭 확장을 모두 필요로 하는 수요에 대처함
 - **인공지능 사용:** 고객과의 소통을 개선하고 고객의 필요나 잠재적 문제를 예측하는 인지적 참여(cognitive engagement)를 지원

- 기술사업화 이슈&마켓 보고서는 해외시장정보 전문업체(Frost & Sullivan, Lexisnexis 등)에서 분석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한 보고서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공식적 견해는 아님을 알려드립니다.
- 본 보고서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홈페이지(<https://www.innopolis.or.kr>)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.
-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하며, 내용을 인용할 경우 출처를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